

꼭두각시

3-7 박*진

“그 실, 끊어줄까?”

평소와 같이 410번 버스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옆에 앉아있던 처음 보는 한 남자가 친근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네?”

“그 실, 끊어줄 수 있는데 끊어줘?”

그 남자가 다시 한번 나에게 되물었다.

“혹시 등 뒤에 거미줄 같은 것이 붙어있나요?”

처음 보는 남자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에 대한 최선의 답변이었다.

“역시 네가 제일 재미있어.”

남자가 옅은 웃음을 띠며 나에게 말했다.

“아, 네....”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해대는 남자가 거북스러웠지만 서서 가기에는 다리가 아팠던 터라 나는 목적지까지 대충 대답하며 이어폰을 끼고 이어지는 남자의 말을 무시했다.

목적지에 도착해 버스를 내리며 본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그 의미심장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괜히 계속해서 신경이 갔지만 평소와 같이 이어지는 일상들 사이에서 어느새 나의 머릿속에 불쾌한 그 남자의 기억은 금방 잊혀져 버리고 말았다.

·
·
·

“그 실, 끊어줄까?”

평소와 같이 410번 버스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옆에 앉아있던 처음 보는 듯한 남자가 친근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네?”

“그 실, 끊어줄 수 있는데 끊어줘?”

그 남자가 다시 한번 나에게 되물었다.

“혹시 등 뒤에 거미줄 같은 것이 붙어있나요?”

나는 낯선 남자에게 대답하면서도 무언가 기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젠가 한번쯤은 이런 일을 겪어 본 듯한...

"뭔가 깨달은거야?"

깊어지려던 생각은 내 마음을 읽은 듯한 남자의 질문으로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다. 남자가 슬그머니 웃으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등 뒤에 저마다의 실을 매달고 살아, 저기 검은 구두를 신은 남자, 책가방을 매고 있는 아이, 앞에서 운전하고 있는 버스기사 그리고 너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등 뒤에 실을 매달고 살지.”

남자는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저번부터 자꾸 무슨 실을 말하는거예요?”

나는 이유모를 불쾌감에 조금은 공격적인 말투로 그 남자에게 질문했다.

“역시 깨달았구나, 화는 내지 말고 들어봐. 등에 실이 달린 사람들은 하나 같이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어. 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동공, 초점 풀린 눈, 다들 의욕이란 것은 갖다 버린 지 오래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그가 앞서 가리킨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확실히 틀린 소리 같진 않았다.

“그래서 대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난 그런 사람들을 꼭두각시라고 불러, 실에 묶여 누가 조종하는 것처럼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거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대는 남자였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꼭두각시... 꼭두각시... 꼭두각시...”

나는 꼭두각시 라는 단어를 여러 번 중얼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실에 묶여 누가 조종하는 것처럼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마치 정해진 틀 대로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 전부 내 이야기였다. 나 또한 꼭두각시라는 생각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하면 꼭두각시에서 벗어날 수 있죠? 아까 실을 끊을 수 있다 했잖습니까!”

나는 흥분해 급한 목소리로 그 남자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자기가 과거에 원했던 것, 지금 하고 싶은 것,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누군가의 소망으로, 누군가의 명령으로, 누군가의 손가락질로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조차 거치지 않고 행동하지.”

그는 소리치는 나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리고 그가 계속 이어 나가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나를 찌르는 것 같아 입을 쉽게 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좋아해. 갖고 놀기 재밌거든.”

불쾌했다. 가지고 논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도, 해야 할 말을 끝까지 잊지 않는 것도 불쾌감이 차올라 입을 떼려던 찰나, 그가 말했다.

“오늘 이야기 즐거웠어. 만약 우리가 다음에 만났을 때 네가 나를 기억하고,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실을 끊어 줄게. 그럼 다음에 봐 안녕.”

그는 나의 마음에 깊은 표식을 남긴 채로 버스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나는 그와 나는 대화를 다시 생각하며 차창을 바라보았다. 갈 길 잃은 동공, 초점 잃은 눈, 의욕 따위는 갖다 버린 지 오래된 것 같은 모습 그가 말했던 모습들은 차창에 비친 나의 모습이었다. 문득 어깨 위에 투명한 실이 보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날의 만남 이후 그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와 나는 대화는 나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고 나는 다시 일상에 젖어 갔다.

·
·
·

“그 실, 끊어 줄까?”

평소와 같이 41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친근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듣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아파오는 머릿속에서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꼭두각시.”

내가 이 단어를 떠올려내자, 그 남자는 매우 기괴한 웃음을 짓고 날 쳐다보며 말했다.

“역시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이제 실을 끊어줄게.”

그는 손으로 가위질하는 시늉을 했다. 그러자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짐들이 전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저는 이제 뭘 해야 하죠?”

내가 그 남자에게 물었다. 평생을 지키는 것만을 하면서 살아왔기에 그 굴레에서 벗어난 지금 나에게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네가 과거에 원했던 것, 지금 하고 싶은 것, 미래에 하고 싶은 일, 누군가의 소망이 아니라 너의 소망인 일,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령인 일, 누군가의 손가락질로 움직이는 일 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일, 너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전부 하면 돼. 할 게 너무나 많지.”

그가 기괴한 웃음을 유지하며 나에게 말했다.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넌 내가 가장 아끼는 꼭두각시니까.”

그와의 첫 만남 때부터 쌓여왔던 불쾌감이 터진 듯한 기분이었다.

꼭 나를 손바닥 위에 놓인 장난감처럼 여기는 태도, 아무리 나에게 자유를 선물해 준 장본인이지만 계속 차오르는 불쾌감에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남이 조종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 미안, 내가 말실수를 했네.”

남자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사과하니 난 더 이상 화를 내기도 뭐해 화난 마음을 홀로 삭힐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좋군요,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평소 하차하던 정류장이 아니었음에도 개의치 않고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를 내리며 본 남자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기분 나쁜 미소를 띠며 나를 보고 있었다. ‘참으로 기분 나쁜 남자다.’ 속으로만 생각하며 나는 도회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즐거워 보이는 표정의 행인들, 어렴풋이 들려오는 노랫소리, 스쳐 지나가는 처녀들의 분내음, 항상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던 일상 속에서는 절대 느끼지 못했을 자극들의 향연.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던 나는 거리에서 가장 화려한 주점으로 도피하듯이 들어갔다.

누군가는 구석에 홀로 앉아 술만 훌쩍이고 누군가는 끼리끼리 모여 앉아 왈자하게 떠드는 그 공간에서 무언가에 취하지 못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나 밖에 없는 듯해 급하게 빈자리를 찾아 앉을 수밖에 없었다.

“주문을 뭘로 하시겠어요?”

“예? 아, 그... 저쪽 테이블에서 마시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주문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이런 주점을 다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의 떠들석한 이야기 소리가 나의 귀 속에 들려왔다. 자신이 원하는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즐거워 보였다. 시끄러운 분위기에 잠겨 생각이 깊어 질 때쯤 가게 주인이 말했다.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나는 어설피게 음식을 받으며 말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음식을 받은 후 나는 실이 달려있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속해 있다는 사실이 좋아서인지 혹은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분위기에 취해서인지 꽤 빠른 속도로 혼자 술잔을 들다 술과 분위기에 취해 기분이 좋은 듯 혼잣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드디어 나에게도 실이 없어... 나는 이제 꼭두각시가 아니야... 그토록 원하던 자유야...’

계속해서 혼잣말을 반복하던 중,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향수내음이 나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져 옆을 돌아보니 한 여자가 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내 옆에 자리를 잡은 여인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아, 그럼요. 있죠, 당연히 있죠. 제가 인생 25 년만에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맨날 남들이 시키는 것만 하던 이 내가 드디어 혼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술에 취해서인지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향수내음에 취해서인지 나는 처음보는 여인에게 쉽게 자랑하듯 말을 할 수 있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럼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좋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녀와 나는 각자의 이야기를 안주로 삼아 술을 한 잔씩 주고받았다.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를 축하해 주기도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를 위로해 주기도 하며 점점 그녀와 가까워져 갔다. 그녀와의 만남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가게 주인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가게 문 닫을 시간입니다. 손님.”

“그럼 우리 이제 장소를 옮길까요?”

“그렇시다.”

나는 자리를 옮기자는 그녀의 제안에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수락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홀로 있을 때보다 훨씬 외롭지 않았고, 그녀와 함께 한 술은 혼자 마신 술보다 훨씬 달았으며, 그녀와 한 이야기는 혼잣말보다 훨씬 재밌었기 때문이다.

그녀와 나는 다시 도회지의 나와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아까 나를 반겼던 번쩍이는 네온사인들은 시간이 지나 모두 꺼져 있었고 우리를 반기는 것은 여관의 네온사인 하나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술집에서 다 마시지 못한 술을 마실 곳은 이 곳 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럼 이 곳에서 술을 마십시다.”

우리는 자연스레 여관으로 발걸음을 향했고, 여관방에서 술을 한 잔씩 주고받으며 각자의 소리로 우리들의 밤을 채워 나갔다.

.
.
.

부스럭 부스럭 거리는 거슬리는 소리에 나는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잠에서 깬다. 어제 밤을 함께했던 여인이 여관 방을 나가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월요일이니까, 일 가야죠.”

여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나에게 대답했다.

“당신 나와 같은 자유민 아니었습니까?”

여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듯이 나에게 말했다.

“아직 술이 덜 깨신 것 같네요. 좀 더 쉬다가 나오세요. 전 먼저 갈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녀의 단호한 말을 듣자 밤을 함께하며 허물었던 그녀와 나 사이의 벽이 다시 단단하게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당황스러워 나가려던 그녀에게 말했다.

“자..자...잠시만요!”

“예?”

그녀는 뒤돌며 대답했다. 뒤돈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그녀의 어깨위에 투명한 실이 보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그녀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아...아닙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나는 그녀가 떠나간 후 깊은 생각에 빠졌다. 대체 자유란 무엇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 아니었나?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무엇이 남았지? 나는 어제 자유민들 사이의 분위기에 취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꼭두각시들 사이에서 술을 마신 것이었나? 애초에 자유민과 꼭두각시의 차이는 뭐지? 수많은 궁금증이 나의 머릿속을 휘어잡았다. 이제 더 이상 이 두통이 어제 마셨던 술 때문인지 복잡한 생각 때문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이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도회지의 길거리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어제 나를 맞이하던 도회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고, 새로운 모습이 날 맞이하고 있었다. 어젯밤 번쩍이던 네온사인은 전부 다 꺼져 회색빛을 띠었고, 즐거워 보이는 표정의 행인들은 사라지고 버스 차창에 비쳤던 나의 모습과 비슷한 꼭두각시들만 남아 있었고, 어렴풋이 들려오는 노랫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대신하고 있었으며, 스쳐 지나가는 처녀들의 분내음은 자동차의 매연내음으로 바뀌어 도회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바뀌어버린 도회지덕에 더 아파오는 머리를 부여잡고 도회지 거리 중앙에 서 바쁜 발걸음을 하는 수많은 꼭두각시들을 보았다.

나는 그 꼭두각시들처럼 걸었다. 계속 걸었다. 모두가 저마다 실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는 이 도시 속에서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나뿐인 듯했다.

나는 다시 사람들의 등허리에 있는 각자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실이 부러워 보이기 시작했다. 실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실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애초에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나에게겐 그 남자와 실이 필요했다.

나는 그 남자를 찾아 그 남자와 헤어졌던 그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없었다. 난 다시 내가 평소 내리던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그래도 그 남자가 보이지 않아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정류장에 앉아있었다.

그 남자의 손바닥 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을 끊고 발버둥을 치다가 하루만에 제 발로 돌아오다니 내가 생각해도 너무 우스웠다.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말하던 그 자유는 찾았어?”

그 남자였다. 나는 비꼬는 듯한 말투에 쏘아붙이는 듯한 말투로 그 남자에게 물어보았다.

“자유... 대체 그 놈의 자유란 뭘니까?”

“너는 또 결국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나에게 묻네.”

나는 그 남자의 한 마디에 분을 못 이겨 울컥하며 그에게 말했다.

“자유... 저는 당신이 말한 그 자유 한 단어를 제 혼자 힘으로 찾아내기 위해 당신이 말하던 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전부 했습니다. 도회지의 화려한 풍경속에 빠져들기, 가장 화려한 술집의 분위기에 취해 술 마시기, 한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밤 보내기 하지만 이것들은 일회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의 공허함, 허무함, 허탈함으로 바뀌더군요. 마음속에 남는 공허함, 허무함, 허탈함 이것이 당신이 말한 자유입니까? 그리고 당신을 찾아다니면서 도회지 중앙 거리에서 남들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들을 보았습니다. 그 꼭두각시들에게 달려있는 실이 다시 부러워 보이더군요. 저는 애초부터 실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신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쳤습니다. 저에게 자유라는 것은 사치였던 걸 너무 늦게 깨달은거죠. 이제는 다시 평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화를 낸 것은 죄송하지만 다시 저에게 실을 달아주세요.

그 남자는 나를 크게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정말로 당신의 실을 끊었을 것 같아? 내가 왜? 말했잖아,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꼭두각시라고, 실을 끊어 줬다가 네가 멀리 도망가버리면 어떡해. 넌 그냥 자신의 실을 외면하는 멍청한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그 남자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나의 귀를 맴돌았다. 나는 충격으로 떨어지지 않는 입을 가까스로 열었다.

“실을 끊어준 적이 없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찬란했던 도회지로 나가 화려했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아름다웠던 그녀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도 실을 끊어준 적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의 말을 듣자 남자는 더욱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아.. 재밌어 역시 네가 제일 재밌다니까. 그 시간들이 너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진 시간이라고? 잘 생각해봐. 그 날 버스에서 네가 실이 끊어진 줄 알고 자유민이 되었다고 착각한 채로 나에게 물었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고 그래서 난 너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명령 했었지. 그 시간은 너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진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명령만으로 이루어진 시간이었어.”

나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지친 듯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그만.. 그만 거기까지 해.”

“그 날 밤 네가 자신을 자유민으로 착각한 채로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는 것은 참 즐거웠는데, 아!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이야기해줄까? 나는 곧 너에게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할거야. 그러면 너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몇 개월 후면 넌 또 나를 잊겠지. 그 때 너를 다시 찾아가서 또 가지고 놀면?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워. 넌 그저 내 손아귀 위에서 놀아난 내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에 불과해.”

그 남자가 말한 사실을 듣자 나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특하고 끊기는 느낌이 들었다. 웃음이 나왔다. 끊임없이 나왔다. 나는 계속해서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막아내고 그 남자에게 말했다.

“당신은 저를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라고 하셨죠? 그럼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넌 내가 가장 아끼는 꼭두각시니까.”

나는 그 남자의 허락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류장을 향해 달려오던 버스에 뛰어들었다.

“안돼! 그만둬!!”

나는 점점 멀어져가는 정신 속에서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네요. 당신이 말하던 자유를...”

.
.
.